

##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 사우스 브런스윅

### 사우스 브런스윅 구역

매사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우스브런스윅 구역은 10세대로 구성되어있고 가슴과 머리에 닿는 구역모임과 나눔시간을 통해 친교의 소중함과 각 가정의 평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구역원 명단

- \*곽신규 루시아
- \*김태경 카타리나, 고명진 다이애나, 고병준 요한 가정
- \*김현걸 토마스아퀴나스.김숙정 레지나 가정
- \*서인석 프란치스코.오현주 테레사.서채원 아네스 가정
- \*손영수 유스티노.손홍희 아네스.손민정 안토니아. 손지훈 패트릭 가정
- \*신준호 빈첸시오.이소희 베로니카 가정
- \*안용봉 요셉.이정임 로즈마리.이지선 아네스 가정
- \*이승권 요한.이혜정 로사.이하은 엘리스.이나은 글라라 가정
- \*정진오 프란치스코.유미선 글라라.정민우 에릭 가정
- \*한상철 빈첸시오.한종매 안나 가정



### 손영수 유스티노

팬데믹이 익숙해 진지 벌써 2년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참 쉽게 변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미사보고, 코 앞에 있는 미국 성당 가고, 각종 모임에도 안 나가고, 나의 이기적이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구역모임이 재개되면서 최근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몇몇 구역원들이 저에게 주일 미사 때 얼굴 좀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좀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도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20). 말씀대로 주님이 이웃을 통해 나에게 하신 사랑의 표현이었기에, 성당의 미사, 모임, 행사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잘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심을 실감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임마누엘’, ‘야훼이레’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다 알아서 마련해 주신다). 앞으로 내 삶과 교우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자매/형제님.

### 한상철 빈첸시오

우리 가족이 에디슨 한인 성당의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식구가 된지도 어언 20년이 넘는다. 그간의 세월에 우리 가족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이주 초기 아무 연고도 없는 나에겐 황무지나 다름 없는 이곳에 한인 성당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한인 교우들과의 생활 만으로도 나의 이주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될수 있었던 것 같다. 더우기 머나먼 타국 까지 와서 한동네 식구가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가? 열심히 같이 친교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방인으로서의 고달픈 환경을 잘 극복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더욱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섞여 살면서 그래도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며 고만 고만한 어깨를 부딪치며 살아간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또 신나기도 하였다.

### "구역식구"

이 먼 미국 땅에서 이처럼 기적같은 인연이 과연 섭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더욱 더 소중스럽게 느껴진다. 그간 우리 성당은 분할과 재결합 또 이사, 이사, 또 이사로 위태로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잡초같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오늘도 우린 가슴에 똑똑 베어든 한인 신부님의 한국말 강론을 매주 듣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한때는 거의 전구역원이 성당의 주요 보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친교 행사 때마다 주는 상도 잘 받아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량이 고랑되고 고랑이 이랑되 듯 그렇게 부침이 이루어져 가는걸까? 지난달 오랫동안의 구역모임엔 각자 사정이 있겠으나 네 가정만이 참여하여 조금 아쉽기도 했다. 다음 모임엔 좀 더 많은 반가운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며 아래 말씀을 새기며 마무리 한다

**마태복음 18장 19~20:**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중의 두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 정진오(프란체스코) 유미선(글라라) 정민우(에릭) 가족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요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게을러지고, 흐트러진 저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하느님 마음에 들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연중 제21주일

2022년 8월 21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요일  
(8:30AM~1:30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루카 13,22-30>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 66,18-21
- #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ㄴ(©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 제2독서 히브리서12,5-7,11-13
- # 복음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 # 복음 루카 13,22-30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34      봉헌 219      성체 175      파견 65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진억수 - 김 아가다
- 방 도밍고 - 임 안나
- 김 마리아 - 임 안나
- 변수달(요셉) - 변태용(요셉)
- 박의재(루가) - 변태용(요셉)
- 강속희(멜라니아) - 에디슨 구역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유병기(베네딕도)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정영철(프란치스코)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백영숙(헬렌) - 가족
- 최완준 - 양 마틸다, 허 아나스타시아
- 최혜자(헬레나) - 허 아나스타시아
- 메타천 구역 형제, 자매님들- 허 아나스타시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28명).....\$1,251
- 2차 헌금 (유틸리티).....\$459
- 교무금.....\$450
- 허종(8)      김현걸(7-8)      김삼식(8)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디슨 한인성당 성모공원 조성기금 마련 골프대회 안내**

- 일시: 9월 5일 월요일 (Labor Day) 12시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 및 후원 문의: 오 토마스 (Thomas Oh) 917-662-8353
-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하계 휴가 안내**

• 8월 31일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중 사무장에게 전달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지향 신청 예물은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겠습니다

**2차 헌금**

- 8월 28일 : 교구청 주관 선교 후원금 모금(Missionary CO-OP) 인도 건터 교구청 소속 Rajesh Kumar Nettam 신부님이 8월 20일(토) ~ 21일(일) 선교 후원금 모금 을 위해 본당을 방문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9월 11일 : Peter's Pence (교황님 세계 선교사업 지원)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중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8월,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안내**

- 9월 11일(주일)에는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 개인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732-258-5998)

**신부님 주일학교 학부모 면담**

- 일시 및 장소: 8월 21일 (주일) 미사 후 12시 40분, 친교실

**한,미 통합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24일 (수요일) 저녁7시, 친교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2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썸머셋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 일시: 2022년 9월 11일(주일) 오후 2시
- 참가비: \$20(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메주고리에 성지순례권 (이외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백 공원 Henry Hoebel 파빌리온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 문의: 사무실 또는 KCB 718-888-9130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선생님 모집**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 (K~8 grade)와 유스그룹 (9~12 grade)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주일학교 학생 모집**

- 개강: 9월 18일
- 접수: 8월 7일부터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이사야서.66,18-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쫓, 활 잘 쓰는 루드, 투발과 아완 등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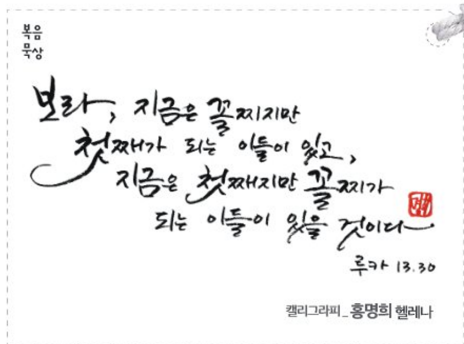
**제 2독서 히브리서 12,5-7.11-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3,22-30**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풀씨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씨지만 풀씨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우리나라에서 가톨릭교회를 천주교(天主教)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기독교(基督教)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자로 음역(音譯)하여 사용한 것으로, 유일하신 아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곧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회(혹은 천주교),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혹은 개신교)를 모두 포함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리와 전례, 신앙생활의 차이 때문에 여러 분파로 갈라졌지요. 그리스도교는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갈라집니다. 먼저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로마 가톨릭교회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여러 분파는 교리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은 교황(혹은 주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교계체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별교회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가톨릭은 일곱 개의 성사를 중심으로 전례가 이루어지지만, 개신교는 세례성사 외에 다른 성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성전(聖傳)과 성경을 동등하게 계시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성경만(가톨릭은 66 권의 정경과 7권의 구약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개신교는 구약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예배가 전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화를 거치는 연옥(煉獄)을 믿지만,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가톨릭은 마리아를 우리 신앙인의 가장 훌륭한 전형이요 모범으로 여겨 각별한 공경을 드리지만, 개신교는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로만 인정하고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구세주로 믿으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갈라진 형제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한다.”(일치 교령 3항)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